



WWF

세계자연기금

MARKET
TRANSFORMATION

KR

2016



더 나은 생산을 위한
더 많은 이들의 노력
WWF 시장변화 활동 보고서

세계자연기금(WWF)

세계자연기금은 1961년 설립된 비영리 국제자연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사람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을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유도하며,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소비 절감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0년간 자연보전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 공식적으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가 설립되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

본 작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조언과 도움을 주신 WWF 국제본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Richard Holland, Alfred Schumm, Rodney Taylor, Maria Boulos, Elly Peters

세계자연기금 국제본부(WWF International)

Avenue du Mont-Blanc
1196 Gland, Switzerland
www.panda.org/markets

원본 디자인 작업: Catherine Perry

국문판 디자인 작업: 베스트셀러바나나

표지 사진: © Portumen / Shutterstock.com

발행인 윤세웅

번역 감수 박재윤, 안혜진, 김효정

발행처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

발행일 2016년 3월

발간 관련 내용: 본 보고서는 2014년 11월 WWF 국제본부(스위스 글랑)에서 영문판으로 최초 발간되었습니다. WWF-Korea는 이 보고서를 국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2016년 1월까지의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전체를 복제하거나 일부 복제 및 배포하는 경우 반드시 제목을 명시하고 위에 열거된 기구에 저작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인용 표시: WWF, Making Better Production Everybody's Business

© Text and graphics: 2014 WWF

All rights reserved.

본 보고서를 교육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나 WWF 측에 사전 서면 고지 및 출처표시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보고서를 재판매 또는 기타 상업적 목적의 재출판하는 것은 금합니다.

fsc logo to be
added by printer

이 보고서는 세계산림책임관리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로부터 인증 받은 종이와 방식으로 인쇄되었습니다.

목차

서문	4
WWF의 접근법	
원자재 시장이 중요한 이유	6
소프트 원자재, 그 불편한 현실	
농업과 임업, 어업이 인류와 자연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10
더 나은 성과 만들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	12
기준 높이기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인증제도 도입 장려	14
소규모 생산자 커다란 혜택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를 통해 소규모 생산자의 이윤 창출 지원	18
시장변화	
더 나은 생산 방식을 요구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증가	22
투자 영향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원자재 생산의 투자 확대	28
변화 유도	
새로운 기업, 정부, 소비자가 참여할 때 마다 잠재 영향 급증	30
투명성	
정보 공개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자발적 개선 정도 파악 및 능력 함양	34
공공 정책	
자발적 기준 마련을 넘어 정부 정책과 규제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36
역량 제고	
WWF 네트워크 및 광범위한 외부 기관의 시장변화 활동 지원	38
미래 전망: 새로운 기준	
지난 몇 년간의 시장변화에 대한 관심 확대로 향후 몇 년간의 중요성 증대	40

www.wwfkorea.or.kr/whatwedohome/mti/

서문 **시장이 변화해야 지구의 밝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 WWF / Richard Stonehouse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
윤세웅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자연자원을 채취해 온 방식이 지난 수 천 년 동안 우리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인류의 어떤 시대보다 지구의 생태적 균형과 생물다양성, 그리고 자연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직간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식에 대해 되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세계자연기금(WWF) 한국본부는 2014년 설립 이후 '시장변화 이니셔티브(Market Transformation Initiative)'를 한국에도 활성화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WWF가 2009년 주창한 이 이니셔티브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에 흔하게 쓰이는, 하지만 그 쓰임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주요 원자재를 생산·유통·소비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시장변화의 핵심은 기업입니다. 한 제품이 생산·유통·소비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특히 70억 소비자 대다수를 설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핵심 원자재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약 500개의 주요 기업들이 바뀐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장의 판도가 변화하고 소비자들도 좀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진전과 성과를 올리며 시장변화를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이 보고서에서 요약된 지속가능한 원자재에 대한 인증체계들은 전 세계 인증량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더욱 빠르게 시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 소비 쪽으로 변화하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한국에서는 아직 태동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전 세계 250여 개의 어업이 지속가능인증(MSC)을 얻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전무한 상황입니다. OECD국가들이 앞다투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야심 찬 목표를 내놓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도 담론에 머물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빠르게 나아가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지속가능성은 선택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 될 것이고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시장의 변화는 필수입니다. WWF는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여러 이해당사자와 협업하고, 논의를 위한 플랫폼을 제공하며, 인증체계와 같은 가시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혼자 모든 것을 하지는 못합니다. 소규모 자작농부터 소비자, 정부, 비정부기구, 금융기관과 기업까지 모든 이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는 조금 더 빠르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지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Together Possible!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 윤세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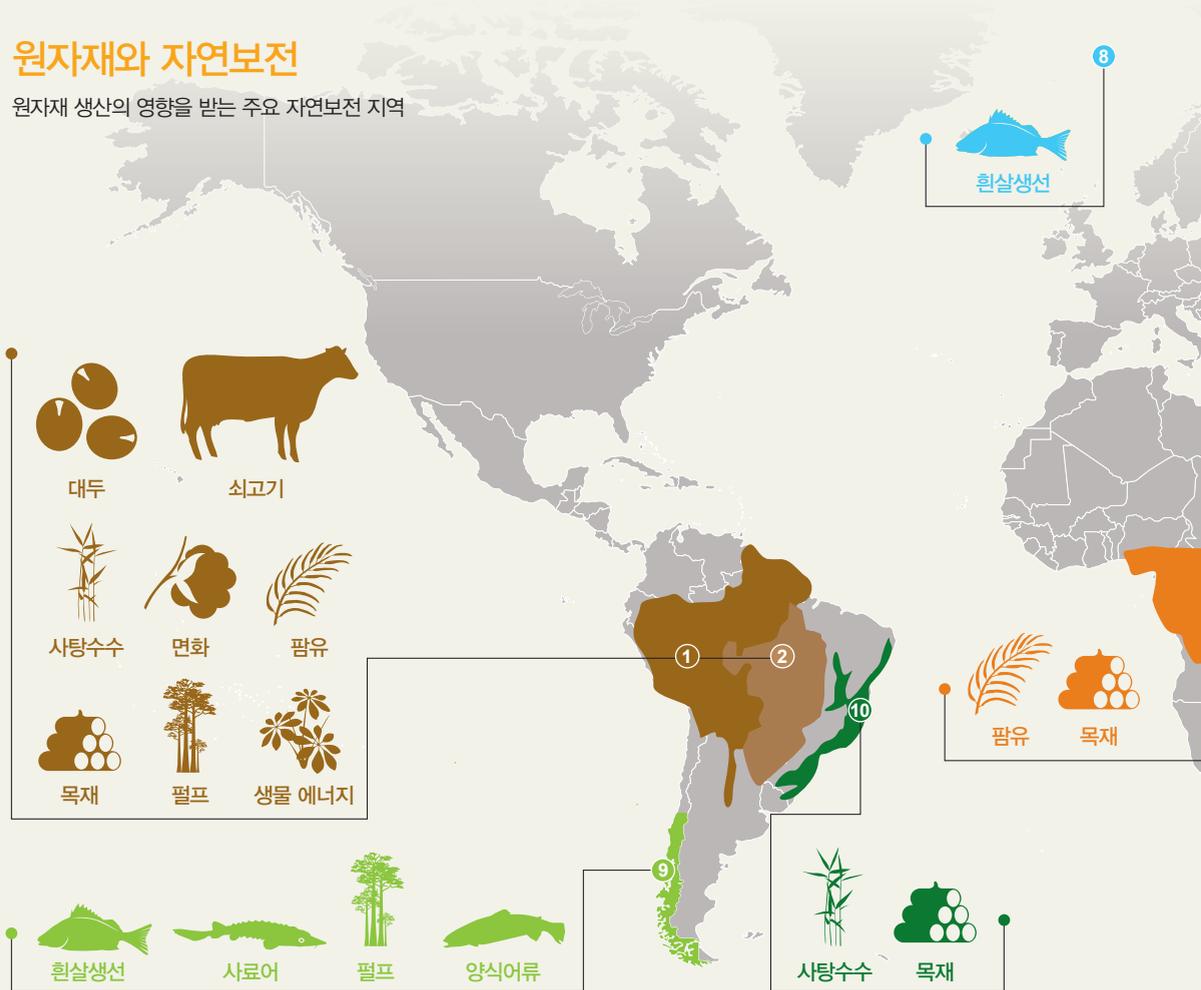
대두 단일재배지와 브라질의 세하도(Cerrado) 열대우림 지역의 현재 경계선: 농업은 지구 생물다양성과 야생지대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WWF의 접근법 원자재 시장이 중요한 이유

인류는 현재 지구 가용범위의 1.5배에 달하는 속도로 자연자원을 소비하고 있어 자연과 인류에 엄청난 부담이 발생하고 그 미래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인구 증가 및 소득 증대와 함께 인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40년간 필요한 식량의 총량은 지난 8,000년간 재배된 총량을 합친 것보다 많다.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연료, 섬유 등 원자재 수요 증대를 충족하면서도 식수를 보존하고 기후를 안정시키며 깨끗한 공기와 야생지역을 후세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원자재와 자연보전

원자재 생산의 영향을 받는 주요 자연보전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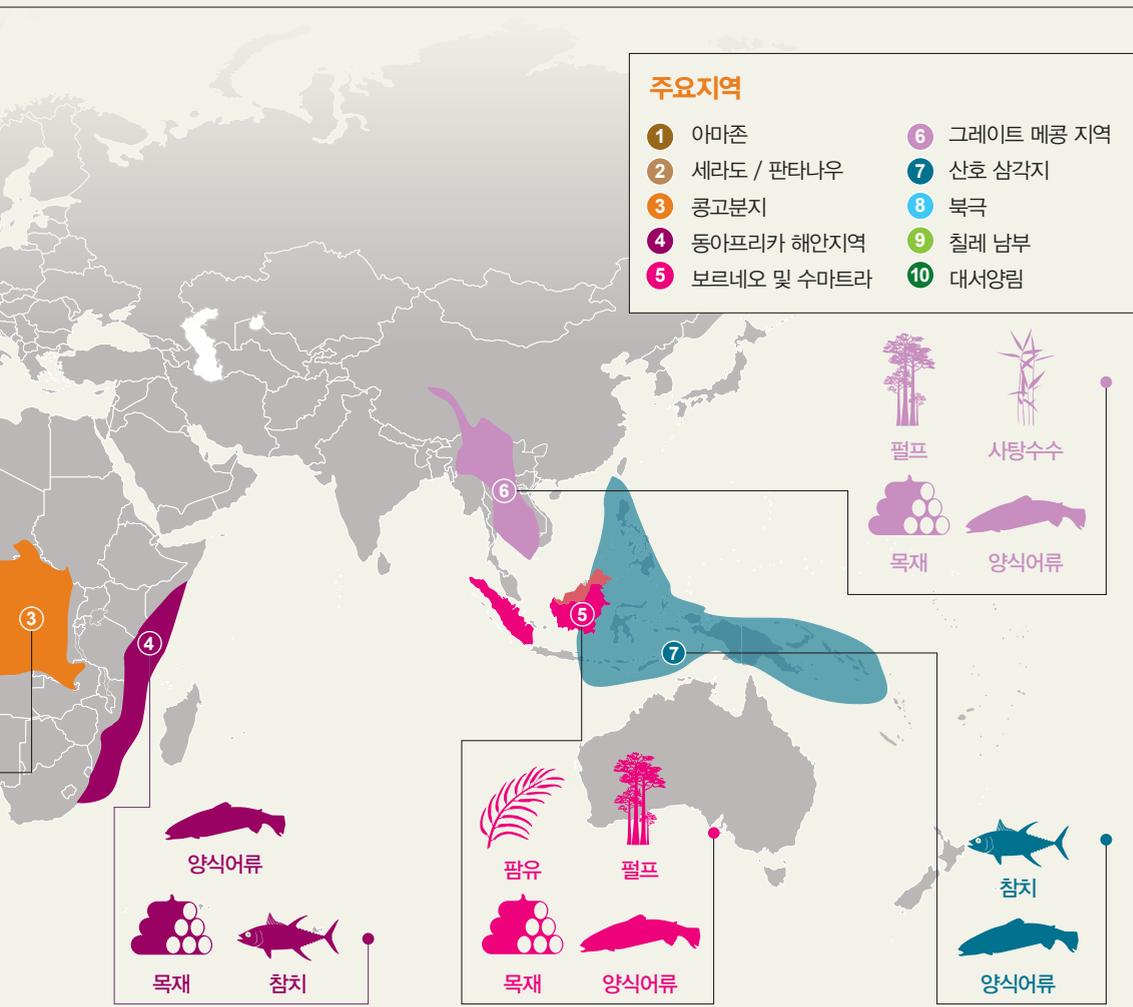


역점 분야

WWF는 생물다양성, 수자원, 기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총 15개의 핵심 원자재에 역점을 두고 자연보전의 중요성이 높은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핵심 원자재는 수억 명의 생계와 식량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극빈층에 속한다. 따라서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원자재 생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세계 주요 자연보전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15개 원자재

목재	펄프/종이	현살생선
팜유	대두	참치
면화	사탕수수	자연산 새우
바이오에너지용 작물	쇠고기	자연산 사료어
유제품	양식 새우	양식 연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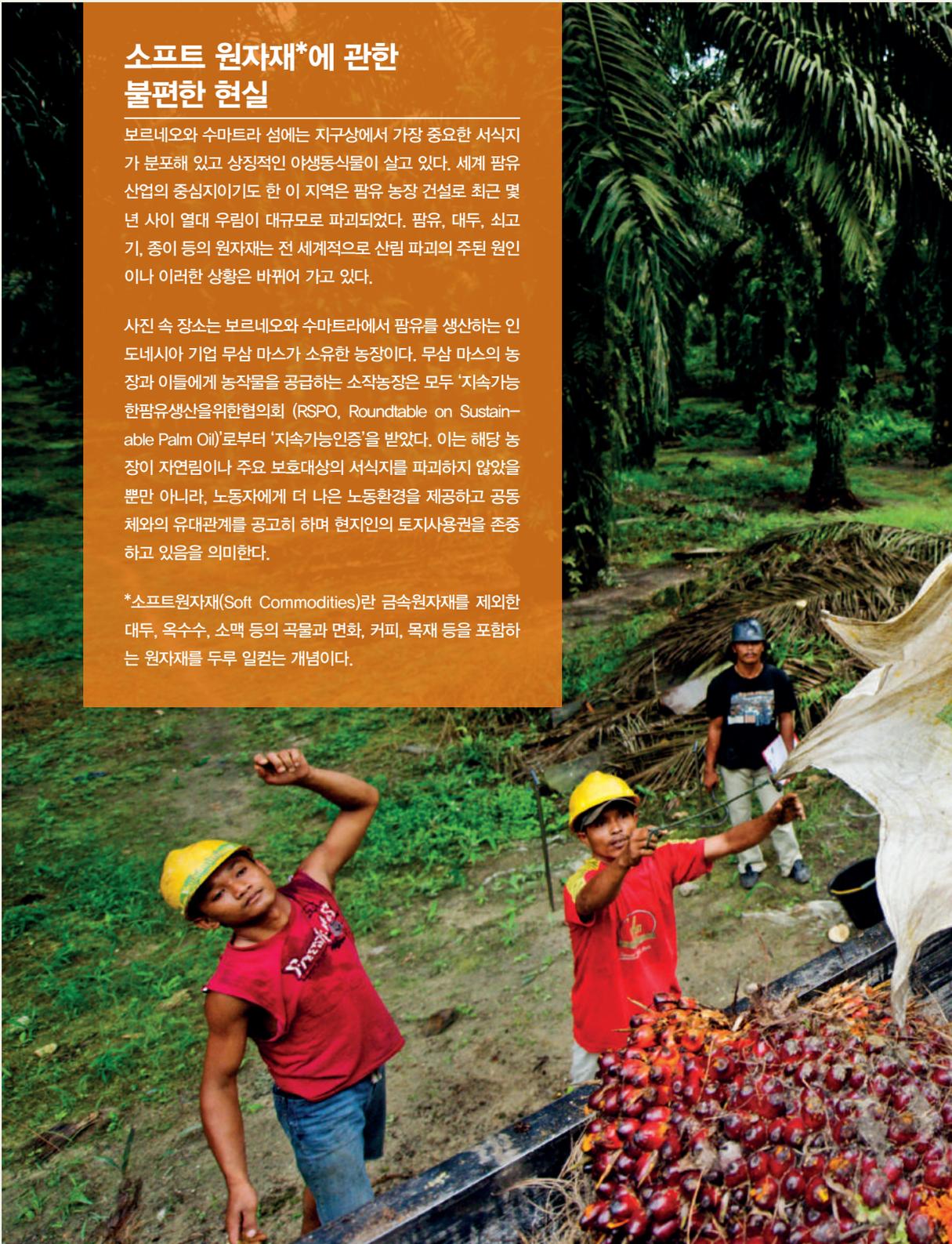


소프트 원자재*에 관한 불편한 현실

보르네오와 수마트라 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지가 분포해 있고 상징적인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다. 세계 팜유 산업의 중심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팜유 농장 건설로 최근 몇 년 사이 열대 우림이 대규모로 파괴되었다. 팜유, 대두, 쇠고기, 종이 등의 원자재는 전 세계적으로 산림 파괴의 주된 원인이나 이러한 상황은 바뀌어 가고 있다.

사진 속 장소는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서 팜유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기업 무삼 마스가 소유한 농장이다. 무삼 마스의 농장과 이들에게 농작물을 공급하는 소작농장은 모두 '지속가능한팜유생산을위한협의회 (RSPO, 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로부터 '지속가능인증'을 받았다. 이는 해당 농장이 자연림이나 주요 보호대상의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공동체와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며 현지인의 토지사용권을 존중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소프트원자재(Soft Commodities)란 금속원자재를 제외한 대두, 옥수수, 소맥 등의 곡물과 면화, 커피, 목재 등을 포함하는 원자재를 두루 일컫는 개념이다.





소프트 원자재, 그 불편한 현실

농업과 임업, 어업이 인류와 자연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

사회적 영향



13억

농업 분야
경제활동 인구

≈80%

개도국에서 소규모
생산자가 생산하는
식량 비율

4,500만

남획과 기후변화로
생계를 위협받는
어업 인구

30-50%

향후 수십 년간
예상되는 실질
식량 가격 인상률

담수



70-85%

전 세계 물 사용량
중 농업용수 비율

2,500억

매년 면화 생산 및
가공에 사용되는 물의
양(단위: 세제곱 미터)
- 전 세계 물
사용량의 약 2.6%

15,000

전통 방식으로 사육되는 쇠고기
1kg 생산에 평균적으로 필요한
물의 양(단위: 리터) - 대부분
사료 재배에 사용

산림파괴



80%

세계 각지에서 식량
및 섬유 생산을
목적으로 파괴된
산림의 비율

4

생산 과정에서
전체산림파괴(및
온실가스 배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자재
(팜유, 대두, 쇠고기,
종이)

2조-4.5조
달러

산림파괴 및 훼손에
따른 연간 자연자본
손실 추정액

68%

현 추세 지속 시,
2030년까지
농경지 확대로
소실될 남아시아
지역 산림의 비율

해양 환경



90%

지속가능 한계치에
근접했거나 이를
넘어선 어종의 비율

1,900만→
8,700만

1950년에서
2005년 사이
전 세계 수산물
어획 증가량
(단위: 톤)

X7

1980년에서 2000년
사이 양식 어류
증가율. 조만간 식용
어류 대부분이
양식으로 공급될 전망.
하지만 양식 사료로
쓰일 자연산 어류가
다량 필요

-50%

양식 중 발생하는,
질병으로 감소된
자연산 연어 생존율

기후



20%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농업,
임업, 기타 토지
이용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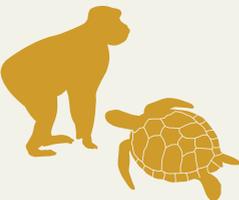
56%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비CO2
(예: 메탄) 온실가스
비율

400+

탄소 배출량 절감 효과를
위해 화석연료 대신
팜 바이오디젤을
사용해야 하는 기간
(단위: 년수, 이탄지대
산림개간지의 경우)

생물 다양성



4,000+

농경지의 확대로
위협받는
동식물 종

70%

보르네오 섬의 지정 보호구역
밖에 서식하는 오랑우탄의 비율.
팜유와 펄프/종이 생산으로
위기종인 오랑우탄이 위협받고
있음. 보르네오 섬과 수마트라
섬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오랑우탄이 야생에서 서식하는
곳임

250,000

매년 붉은 바다거북 20만
마리와 장수거북 5만 마리가
참치, 상어, 황새치 등을
잡기 위해 설치한 주낙에
걸려 상처를 입고, 그 중
수만 마리가 목숨을 잃고
있음

더 나은 성과 만들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지속가능한 시장 형성

사회적 영향



-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현지인의 법적, 관습적 권리를 인정하며, 노동자의 근무조건과 관련한 기준을 제시하고, 생산 업체가 **현지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함을 명시한다. 또한 문제를 제기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다루는 등 거버넌스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
- 인증제도는 최적관리기법(BMPs, Better Management Practices)을 장려하며 이는 소규모 생산자의 수확량과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한다. 일례로 "더 나은 면화 (Better Cotton)"를 생산하는 파키스탄 농가에서는 **물과 화학약품 사용을 줄여 평균 15%가량 수입을 증가** 시켰다. 인도의 소규모 대두 생산자들 또한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최고 50%까지 수확량을 증대 시켰다.
- 지속가능한바이오소재협의회(RSB, Roundtable on Sustainable Biomaterials) 기준은 바이오 연료 생산자들이 **식량 공급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한편, 필요에 따라 이들의 식량 안보 개선 동참을 의무화하고 있다.

담수



- 세계양식책임관리회(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기준은 양식장이 **수질과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ASC는 폐기물과 영양분 방출, 어류 탈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예방용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서식지와 포식자,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
- BMP는 면화나 사탕수수 같은 작물경작에 사용되는 물의 양을 크게 줄인다. "더 나은 면화"를 생산하는 인더스 계곡의 면화농가는 **물 사용량을 1/3 이상 절감**시켰다.
- 메소아메리칸 리프 집수(Mesoamerican Reef Catchment) 지역에서는 여러 농업 분야에서 BMP를 시행한 결과 **농약 독성을 68%나 절감**할 수 있었다.

산림파괴



- 세계산림책임관리회(FSC, 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은 책임감있게 관리되는 산림**을 이용해 목재와 종이 생산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제도이다.
- 책임감있는대두관리협의회(RTRS, Round Table on Responsible Soy) 인증 대두와 RSPO 인증 팜유의 경우, **원시림이나 사바나 초원처럼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의 전용(replace)을 최소화**한다.
- FSC 기준에 따라 속성수(fast-growing tree) 농장을 관리할 경우, 목재, 펄프, 섬유 수요가 자연림에 가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해양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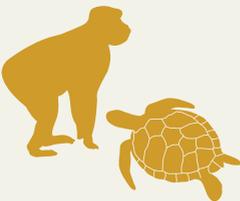
- 세계해양책임관리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은 어업은 책임감있게 관리되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조업하여 미래의 어류 자원을 보존한다.
- ASC 인증 양식장에서 사료로 쓰이는 자연산 어분은 MSC 인증 원료만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또한 ASC는 양식어류 1kg당 **사용할 수 있는 자연산 어류 양을 엄격히 제한**한다.
- 육지의 농업 생산이 개선되면 퇴적물 및 농약 유출이 줄어들어 취약한 해양환경을 보호한다. 호주 대보초(Great Barrier Reef) 유역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총 2만 헥타르의 면적에서 일하는 사탕수수 농부 78명이 **1,000억 리터가 넘는 유기수에 포함된 질소, 인, 제초제와 같은 오염물질의 농도를 크게 줄였으며**, 이로 인해 산호의 상태가 개선되었다.

기후



- 인증 원자재는 숲과 기타 자연생태계를 개조시키지 않고 생산됨으로써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감소시켰다.**
- RSB 인증 바이오 연료는 화석연료 대비 **50% 이상의 탄소를 감소시켰음**을 입증해야 한다.
- 지속가능한쇠고기생산을위한협의회(GRSB, Global Roundtable for Sustainable Beef)의 원칙 및 기준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탄소격리를 최적화하는 한편, 산림면적 감소를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산림파괴를 완전히 지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생물 다양성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의 중요한 척도이다.
- FSC 인증 생산자는 본인이 관리하는 숲에 서식하는 **멸종 위기종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MSC 인증 어장은 **혼획을 줄이고 바닷새나 바다거북, 고래류 등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MSC 인증 조건에 따라 남아프리카 헤이크(민대구과) 저인망 어업은 조류를 쫓는 줄을 도입해 **바닷새 사망률을 90%가량 감소**시켰고, 목숨을 잃은 알바트로스도 2004년 기준 약 7,200마리에서 2010년에는 80마리로 감소했다.

기준 높이기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인증제도 도입 장려



시장에 새로운 기준 도입하기

WWF는 지난 몇년 간 6대 원자재에 대해 신뢰할만한 인증제도가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도록 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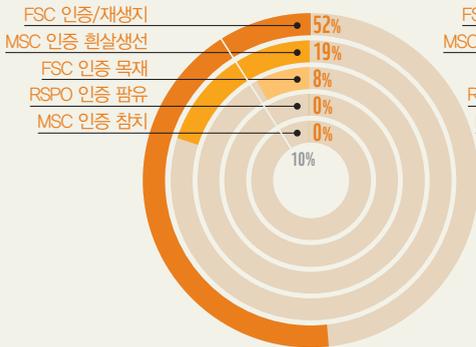
- 연어와 새우 등 양식 어류에 대한 세계 양식 책임 관리회 (ASC)
- 더 나은 면화 이니셔티브 (BCI)
- 지속 가능한 팜유생산을 위한 협의회 (RSPO)
- 책임감있는 대두 관리 협의회 (RTRS)
- 더 나은 사탕수수 협의회 (Bonsucro for sugarcane)
- 바이오 연료 및 바이오 소재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바이오 소재 협의회 (RSB)

이러한 인증 원자재는 현재 모두 시판되고 있으며, BCI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12%에 달하고 있다. WWF가 창립한 GRSB는 현재 쇠고기 관련 기준 정립을 마친 상태이다. 이러한 인증 체계는 전 산업 분야가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각 이해관계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확립되는데, 과거 같등으로 분열되었던 분야에서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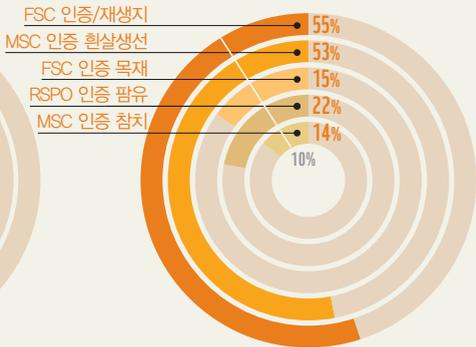
인증 생산량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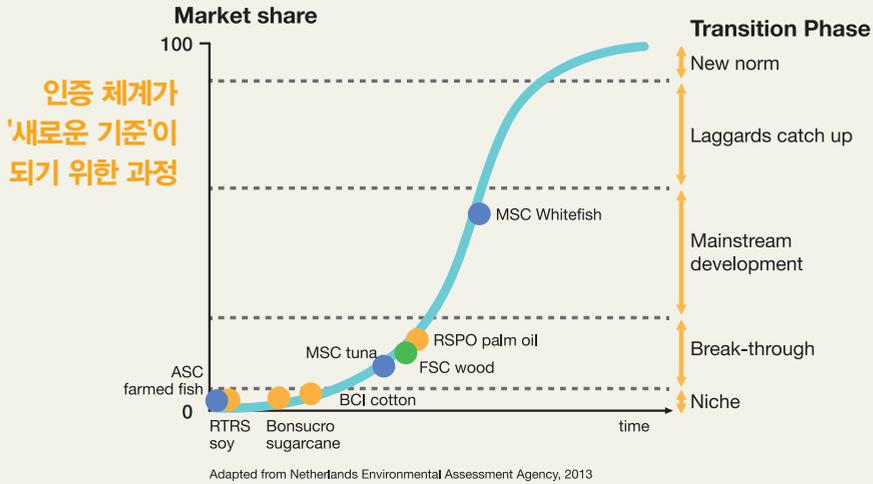
WWF는 기업들에게 상기 기준 도입을 장려하였고, 이에 따라 기존/신규 체계 하에서 인증 생산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일부는 틈새 시장에서 주류 시장으로 이동하며 10%의 장벽을 뛰어넘기도 했다. WWF의 장기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시장 진출의 필수 요건이 되는 것이다. 마치 전자기기 판매를 위해 안전인증획득이 전제조건인 것과 같이, 해당 원자재가 지구의 한계를 넘지 않고 생산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지에 따라 시장 진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2009



2015





최고보다 더 높이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한다. WWF는 기준을 강화하고 문제를 해결해왔으며, 의심스러운 인증에는 문제를 제기 해왔다. 구체적으로는 RSPO의 새로운 재식 절차 도입을 추진하였는데, 구성원들로 하여금 새로운 농작지가 개발되기 전 RSPO의 환경적, 사회적 필요조건이 충분히 고려되었음을 증명하도록 했다. 또한 모든 대두 생산자에게 RTRS기준은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비유전자변형 요소는 개별적으로 적용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MSC의 사회적 요소를 강화하는 데 일조하기도 했다.



**인증제도
효과성을
평가하는
CAT**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높은 기준 유지

인증제도가 급증하며, 신뢰할 만한 인증제도를 찾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WWF는 인증평가도구(CAT, Certification Assessment Tool)를 개발해 특정 인증제도가 긍정적인 사회·환경 변화를 광범위하게 유도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CAT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지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인증제도의 기준 및 시스템 강화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식별하도록 도와준다.

WWF는 지속가능성 기준 글로벌 협회인 ISEAL Alliance와 제휴를 맺었다. WWF는 인증제도의 영향을 평가해 기준 이행이 주요 환경보호지역 및 전 세계의 사회적, 환경적 이익에 어떻게 공헌하는지 알아보고 있다. 또한 기타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페루와 카메룬(FSC열대목재), 칠레(FSC펄프/종이, ASC연어) 그리고 말레이시아(RSPO팜유)에서 평가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MSC 해산물에 대한 평가도 계획되어 있다.



대어 뿐만이 아닌 타깃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소규모 농업, 어업, 임업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WWF는 시장변화 활동을 통해 소규모 생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WWF는 스위스 유통업체 쿵(Coop)을 포함해 여러 파트너들과 협업하여 전통적인 채 낚기(pole-and-line) 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필리핀 어부들을 지원해왔다. 해당 프로젝트는 유럽시장에 수산물을 공급하는 약 2,200대의 목선과 어부 8,000여 명을 지원하는 한편, 이 어업이 황다랑어 MSC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있다. 쿵은 자사의 참치를 최대한 이 어부들로부터 제공받고있다. 채 낚기 방식은 지속가능한 어획 방식이며 해당 프로젝트는 어부들이 과학적 모니터링 및 안전 절차와 같은 부분에서 MSC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유럽시장의 수요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소규모 생산자 커다란 혜택

지속가능한 생산 체계를 통해 소규모 생산자의 이윤 창출 지원

글로벌 시장은 수십 억에 달하는에 달하는 소규모 농가와 재배자, 어부들에게 영향을 준다. 지속가능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이 소규모 생산자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WWF는 소규모 생산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와 개선된 생산기법을 통해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왔다.

20%
소규모 팜유 자작농
생산성 증가량

1 수마트라

소규모 팜유 자작농들은 생계 개선을 위해 일반적으로 농지를 확장한다. 이로 인해 수마트라의 리아우(Riau) 지역과 같은 곳은 심각한 환경 영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 이 지역은 자작농 수십만 명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열대 우림이 있고 코끼리와 호랑이의 주요 서식지이기도 하다.

WWF는 프랑스 유통업체 까르푸(Carrefour)와 협력을 통해 소규모 자작농 약 350명을 지원하였고, 이를 통해 RSPO 집단인증제도를 준수하는 팜유 생산조합을 구축했다. 해당 자작농들은 산림지역을 파괴하지 않고도 개선된 관리 기술을 이용해 생산성을 개선하고, 공동 작업을 통해 비용을 절감한다. 농약 사용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생산성은 20% 이상 늘었다. 현재 주변 자작농들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

X3 2 라오스

일부 가게에서는
지속가능한
라탄생산으로
소득 3배 증가

WWF는 현지인들이 세계 최초의 FSC 인증 라탄(가구, 매트와 바구니 재료 등으로 쓰이는 목재)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40억 달러 규모의 라탄 산업을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마을 7곳에서 700명이 넘는 여성들이 라탄을 재배·수확한 뒤 이를 쪼개서 바구니나 수공예품을 만든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가게 수입이 세 배나 증가했다.



수백명의
어부가 생태계
접근법 학습

3 남아프리카

WWF는 남아프리카 수산업을 선도하는 4대 기업과 책임어업동맹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책임감 있는 어업에 관한 교육을 개발하였고 친환경수산 관리와 해양 생태계 접근법에 관련된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육을 이수했고 이 가운데는 어선의 선장과 선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30~51% 4 인도

**‘더 나은 면화’
재배로 절감되는
물 사용 비율**

WWF는 관리기술 개선을 위해 인도의 목화 농가 수천 곳과 협업했다. 2010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한 농부 8,800명은 물 사용량과 농약 사용량을 각각 30~51%와 38~80%씩 절감했고, 제초제 및 화학비료 사용량은 32~53%까지 낮췄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57%나 줄였다. 지출의 감소는 수익의 증대를 의미한다. 2012년 더 나은 면화(better cotton) 재배 농가의 수익은 30%증가했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을 최소화하는 관리기술 개선을 통해, 여성 면화 재배자의 건강 또한 개선되었다. 더 나은 면화 재배 농가의 수익이 15% 증가한 파키스탄을 비롯해 브라질과 중국, 말리 등지에서도, 인도와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3,000 HA 5 브라질

**FSC 인증
소작농으로
보전되는
대서양림 면적**

펄프 및 종이 시장 진입을 위해 FSC 인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으나, 소규모 자작농들은 대부분 인증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 바히아(Bahia) 주 마쿠리 제지소에서 사용되는 목재 4분의 1을 공급하는 펄프/종이 회사 수자노(Suzano)는 소규모 공급자들을 위한 인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증된 목재에는 수자노(Suzano)가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지금까지 지주(landowner) 75명이 인증을 받았다. 이 지주들은 도합 2만 2,400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이들이 보전하고 복원해야 할 대서양림은 1만 3천 헥타르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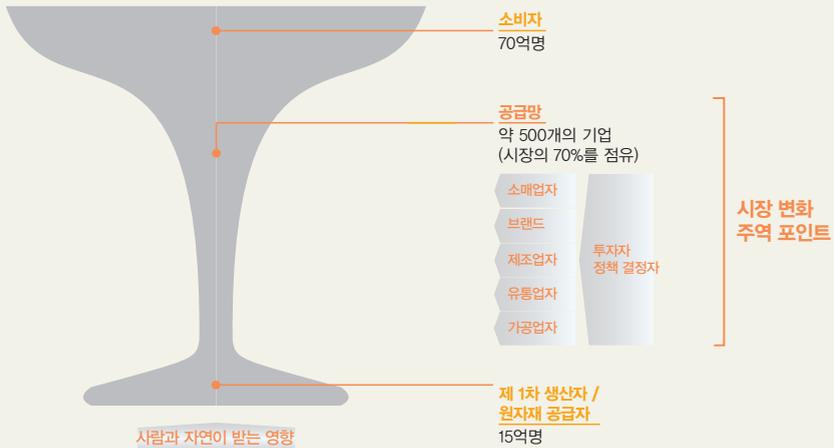
넷 포지티브

칠레 콘셉시옹(Concepcion)항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해역에서 돈루치아노 호의 선원들이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다. 태평양 헤이크(민대구과) 어업은 이들의 생계수단이자, 칠레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칠레 어장의 3분의 2는 심각한 남획 상태에 처해 있다. 이에 칠레 정부는 생태계 접근법을 채택하고 어장 회복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등 광범위한 개혁이 단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헤이크를 포함한 흰살생선의 절반 이상이 MSC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해당 상품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어장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어종에 대한 시장 수요가 늘면서 주요 유통업체 상당수가 MSC 인증 수산물 조달에 힘을 쏟고 있다.

시장변화 더 나은 생산 방식을 요구하는 영향력 있는 기업들의 증가

약 500여 개의 기업이 주요 원자재 시장의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상당수 기업이 더 높은 수준의 생산 기준을 따르도록 변화한다면 원자재 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
주요기업의
지속가능한
시장참여
(2009년)

WWF는 글로벌 원자재 시장에 주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판단되는 100개 기업을 선별하였고 이들은 최소 2가지 원자재의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중 4분의 3이 이해당사자 협의에 참여해 업무 기한을 정하는 등 시장 개선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우측 그래프는 기업의 책임의식 단계와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 어떤 기업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원자재를 조달할 수 있는 전략을 도입하고 있다. Coca-Cola, Coop, Edeka, IKEA, Marks & Spencer, Migros, Unilever 등 대규모 유통업체 및 제조업체가 이에 해당된다. 또한 일부 기업은 자사의 사업부문을 변화시키고 정부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력을 취하는 등 조금 더 진전된 조치를 취해왔다.

3/4
주요기업의
지속가능한
시장참여
(2014년)

공적 행동을 취하는 기업이 4분의 1도 채 되지 않던 2009년과 비교해 엄청난 진전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시작단계에 있으며 기업의 책임의식이 자리잡기까지 여전히 많은 기업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기업의 책임의식 단계



3,500만

**헥타르 산림의 FSC
인증 획득은
WWF와 IKEA
파트너십의 성과**

IKEA의 기업 책임의식

WWF는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조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증상품의 공급을 늘리거나 인증상품을 구매하는 분야/지역에 더욱 높은 기준이 도입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스웨덴 유통업체 이케아(IKEA)는 FSC 인증 목재의 세계 최대 구매자 중 하나이다. 2014년도에만 41% 이상의 IKEA 목재제품이 인증/재활용된 자원으로 생산되었으며, 2017년까지 목재 제품 100%를 인증/재활용 자원으로 생산할 것을 목표로, 지난 십여 년간 WWF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지역의 FSC 인증 확대에 힘써왔다. 이 파트너십으로 3,500만 헥타르 이상, 즉 독일 영토 면적에 준하는 산림이 FSC 인증을 받았으며, 이는 특히 중국, 러시아 및 동유럽 지역에서의 인증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IKEA는 또한 산림정책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예를 들어 관련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러시아 산림법의 수정안을 제시하거나 중국 산림관리국과 협력하여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을 발굴하였다.

주요 성과 및 협력 사례

팜유



- Deloitte의 2014 소매업 글로벌 파워(Global Powers of Retailing) 보고서가 선정한 상위 55개 식품업체 가운데 24곳이 친환경 인증 팜유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2015년까지 모든 제품에 RSPO 인증 팜유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으로는 Carrefour, Kroger, Westfarmers (Coles Supermarkets), Tesco PLC 등이 있다.
- 세계 최대 규모의 팜유 무역업체들도 100% RSPO 인증 팜유 사용을 약속했다. Olam International과 전 세계 팜유 무역의 45%를 차지하는 Wilmar가 2016년까지 RSPO 인증 팜유 사용을 약속했고, Cargill은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5년까지, 그 외 지역은 2020년으로 기한을 정했다.
- Wilmar의 모든 자작농 생산 팜유는 2019년까지 RSPO 인증을 취득할 예정이다.
- 중국 최대의 식품가공업체 COFCO는 2012년 RSPO에 가입했다.

대두



- 유지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 유니레버(Unilever)는 대두(2014년 까지)와 대두유(2020년 까지)를 100%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공급업체와 함께 농가의 RTRS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 유제품기업 Arla는 사료로 쓸 대두로 RTRS 인증 대두만을 사용 할 것을 약속했다.
- 이 밖에도 스위스 소매업체 Migros와 Coop이 2014년까지 90%의 대두를 비유전자변형 RTRS 인증 대두를 구입하기로 했고, 네덜란드 기업 Ahold는 2015년까지 100% RTRS 대두만을 구입하기로 했다.

목재, 펄프와 종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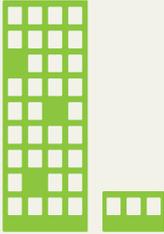
- Unilever는 2020년까지 100% FSC 인증된 종이만을 사용하기로 약속하였다.
- 독일 소매업체 EDEKA는 2015년까지 자사 브랜드의 모든 제품에 100% 재생 용품 또는 FSC 인증을 받은 종이와 티슈, 목재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 Kimberly-Clark는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티슈 제품 생산에 FSC 인증 섬유나 재활용 섬유를 사용하는 비율을 2008년 40%에서 2013년 83%로 2배 이상 늘렸다.
- P&G는 2015년까지 티슈와 수건 제품에 FSC 인증 섬유를 40%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생선 / 해산물



- 2015년까지 모든 해산물을 MSC 인증 어업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약속한 기업으로는 호주 유통업체 Coles Supermarkets과 Woolworths, 미국 판매업체 Sysco, 그리고 세계 최대의 식품 서비스 제공업체인 Sodexo가 있다.
- 미국 최대의 식품품 체인 Kroger는 2015년까지 매출 상위 20여 종의 자연산 해산물을 100% MSC 인증을 받았거나 취득 예정인 어업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 Carrefour는 2014년 말까지 MSC 제품을 2013년 22개 품목에서 50개 품목으로 늘리고, 멸종 위기 해산물은 취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 싱가포르의 참치 공급업체 Tri Marine International 과 태국의 Thai Marine은 지속가능한 참치 어업을 촉진하는 국제해산물지속가능성재단(SFF)에 가입했다.

산업 플랫폼을 통한 영향 확대



- WWF가 협업하는 기업들은 산업 플랫폼과의 연합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달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다.
- 400여개의 세계 최대 소비자 상품 제조업체를 대표하는 소비자 상품 포럼(Consumer Goods Forum)은 열대 우림 산림 파괴의 4가지 주된 요인인 쇠고기, 팜유, 종이, 대두의 산림파괴 없는 공급망 형성을 약속했다.
- 중국상업연합회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WWF는 중국지속가능한소매업협의회(China Sustainable Retail Roundtable)를 구축하였다. 1만 2,0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하며 도합 9조 3천억 위안(1,750조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협의회의 12개 회원기업들은 자사의 비즈니스 전략에 지속가능성을 접목시키겠다고 하였다.
- 전 세계 양식 연어 생산의 70%를 차지하는 국제연어이니셔티브(Global Salmon Initiative)는 2020년까지 100% ASC 인증 제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 세계 참치 통조림 제조업체의 약 60%가 MSC 인증 참치를 위해 ISSF에 가입했다.
- 대두책임관리를위한공급망전환재단은 네덜란드 대두 구매자들의 연합으로, 2015년까지 네덜란드 시장에 100% RTRS 인증 대두 또는 그 기준에 준하는 상품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벨기에 사료산업협회인 Bemefa는 2015년까지 100% 인증받은 대두를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 기업들과 무역 기구들도 2015년까지 프랑스, 독일,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100% RSPO 인증 팜유만을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공급리스크 분석



10

개의 100대기업이
공급리스크 분석을
위해 WWF의 도구를
사용한 바 있다.

기업들은 WWF의 공급리스크분석 도구를 이용해 다수의 국가에서 50여 개의 상품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도구는 생산지역 전역에 걸쳐 소프트 원자재가 야기하는 공급 안보, 환경 및 사회적 리스크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밝히고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 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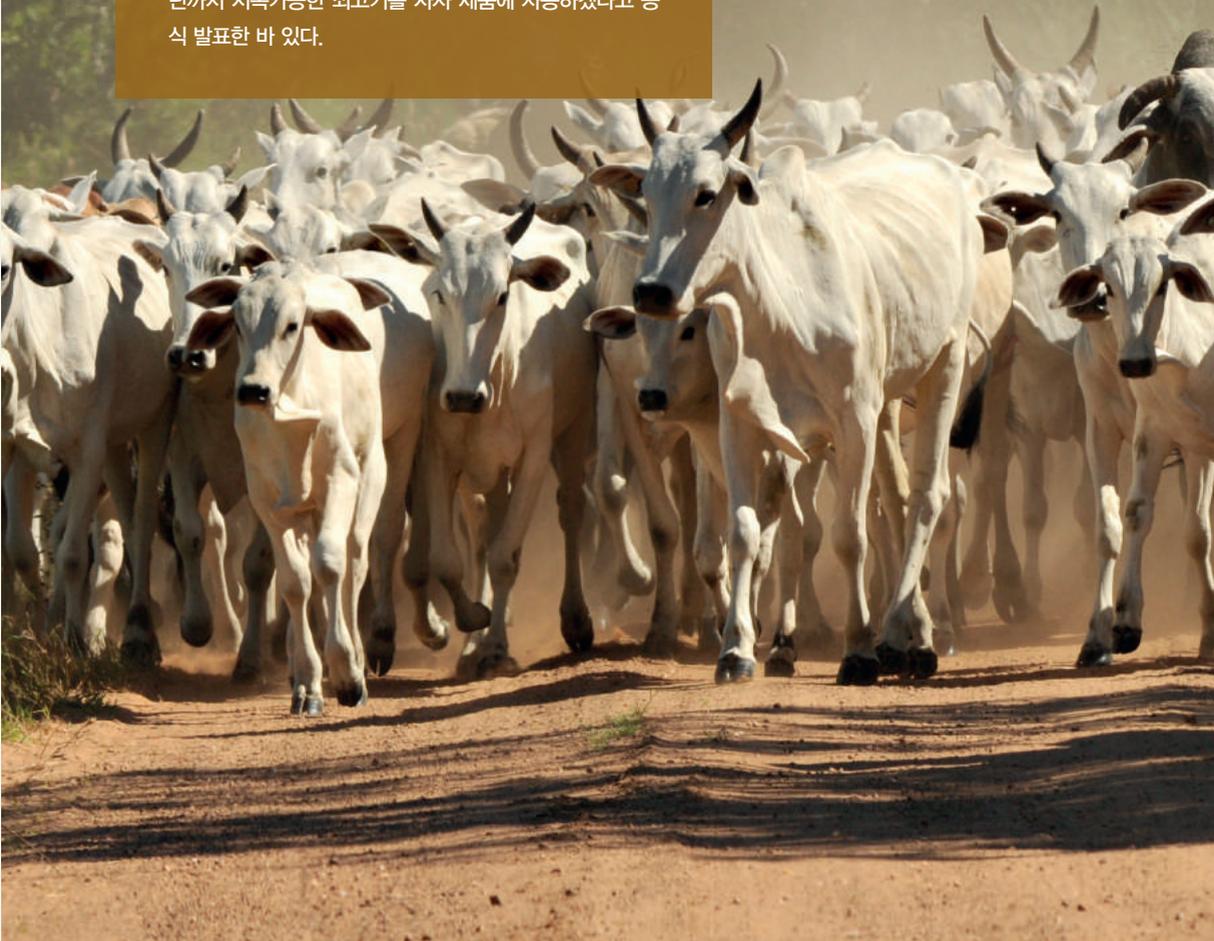
가장 영향력 있는 상위 100여 개의 기업 가운데 10곳이 자사의 지속가능한 조달 정책과 행동 계획을 알리는 데 WWF 공급리스크분석을 사용했다. WWF는 2014년에 웹사이트 (www.supplyrisk.org)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여 기업 참여 활동에 필요한 직접적인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

쇠고기의 중요성

쇠고기는 기후변화 대응, 토지 이용 등 여러 면에서 중요한 상품이다. 높은 수요만큼이나 상품 생산 면적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목축업은 남아메리카 산림파괴의 주범이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WWF는 지난 10년간 브라질 판타날 유기농쇠고기협회와 함께 쇠고기 산업의 환경 및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새 관행이 적용된 지역은 2003년 3,000 헥타르에 불과했으나, 현재 17만 헥타르에 걸친 지역에서 시행 중이다. 개선된 관리 체계는 생산성 증대와 파괴된 목초지의 복원, 탄소 흡수에도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 계획은 GRSB에도 반영되고 있다. GRSB는 2012년에 WWF의 지원 속에 창립되어 현재 지속가능한 쇠고기의 기준을 마련한 상태이다. GRSB 창립 회원인 맥도날드는 2016년까지 지속가능한 쇠고기를 자사 제품에 사용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투자 영향 금융권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원자재 생산의 투자 확대

“정책 개발도 어렵지만 정책 시행은 더욱 어렵습니다. WWF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현장에 적용된 기준과 정책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Richard Piechocki
(선임 사업개발연구원,
Rabobank 네덜란드
지속가능 사업개발팀)

소프트 원자재의 생산지와 생산방식을 결정하는 데 금융기관이 큰 역할을 한다. 은행과 투자자들은 지속 불가능한 생산관행 및 공급망이 초래할 위험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들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이들은 드물다. WWF는 데이터와 도구, 조언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을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2050 기준: 2012년 발표된 2050 기준(The 2050 Criteria)은 주요 농산물, 임산물, 해산물에 대한 지속가능한 투자를 명시한 최초의 지침서다. 해당 기준은 상품 생산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의 이해를 돕고, 위험한 방식과 책임감 있는 방식을 구별하는 도구를 제공하며,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생산 방식을 개선할 수 있게 한다.

산림 파괴 없는 금융: WWF는 금융환경이니셔티브(BEI, Banking Environment Initiative)에서 시민사회와의 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WWF는 BEI 협정 안을 마련하여 2020년까지 열대 우림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은행 8곳과 체결하였다. 해당 은행들은, 소비자 상품 포럼의 약속을 거울 삼아, 임산물과 팜유, 대두 등 산림 파괴와 관련된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획득을 의무화했다.

은행 벤치마킹: WWF의 은행정책 벤치마킹 도구는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업계 내 경쟁은행들의 정책을 익명으로 비교해준다. 해당 프레임워크는 현재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UNEP FI)가 채택하여, WWF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 금융 기관 30곳을 벤치마킹 하였다.

위험분석: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의 GMAP은 2012년 WWF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개발된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과 기준에 따른 위험지도 작성 도구이다. GMAP은 WWF의 공급위험분석을 모델로 하여 개발되었다. IFC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GMAP을 시범 운영하며 8개의 고객 은행사에게 이를 환경·사회 실사 과정의 일환으로 사용토록 했다. 대규모 농산품 무역업체 2곳에서 실사 과정뿐만 아니라 조달 정책에도 해당 도구를 접목시켰다.

팜유 투자자 리뷰: WWF는 35개 핵심 팜유 부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팜유 업계 내의 지속가능성 문제에 관한 견해와 관리 방안을 조사했다. 지속가능한 팜유 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투자자들이 좀 더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와 WWF와 RSPO가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에 관한 결과와 권고사항을 발행했다.



세계 5대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 중 하나인 에콰도르 차코 다리엔 주의 마키푸쿠나 보전지역에서 사탕수수를 가공 중이다. WWF는 투자자들과의 협업을 통해 이들이 상품 생산과 관련한 복잡한 사회 및 환경 문제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변화 유도 새로운 기업, 정부, 소비자가 참여할 때 마다 잠재 영향 급증

지난 몇 년 동안 주요 의사 결정자들 사이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지속가능한 상품 생산, 교역, 대외 구매 관련 논의의 바탕에 WWF가 개발한 아이디어와 개념이 활용되고 있다. 정부 및 새로운 참여자들은 극복해야 할 과제와 그에 따른 대응책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1M USD



파업과 사회 불안은 많은 경우 팜유 농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 일반 농장의 운영이 사나흘 중지될 경우 그 비용은 최소 100만 달러에 달할 수 있다. RSPO의 사회 참여와 노동 원칙을 준수한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나은 생산을 위해

WWF는 팜유, 대두, 해산물을 더 나은 방법으로 생산하는 사업 사례들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다. 발표 사례에 따르면, 생산 방법이 변화되었을 때 비즈니스가 얻는 혜택은 단순히 가격 프리미엄이나 시장 접근성 향상보다 훨씬 크다. 노동자 불만으로 야기되는 대규모 간접 비용을 없애고 화학약품 사용, 이직률, 기타 운영 비용을 줄임으로써 지출의 감소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법규 준수 또한 달성할 수 있다.

98%

EDEKA 팜유 98%가 지속가능 인증을 받았다.

전략적 파트너십

WWF는 긍정적인 변화의 선두주자 기업들과 심도있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한 예로 WWF 독일본부와 독일 소매 기업 EDEKA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은 자원의 절약, 더 나은 소비의 권장, 지속가능한 인증 상품으로의 전환을 통해 EDEKA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작업은 해산물, 목재, 종이, 팜유, 대두 등이 포함되는 주요 상품과 기후, 수자원 이슈와 연관되어 있다. EDEKA는 'WWF 공급리스크 분석'을 활용해 공급 안보, 환경, 사회적 위험요소를 식별, 최소화, 완화하고 있다. 그 외 주요 목표로는 더 많은 종류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EDEKA의 자체 레이블 범위에 포함시키는 일과 지속가능한 소비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 인식 제고가 있다.

1백만

헥타르의 산림을
APP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다

지속가능성이 낮은 기업에 대한 압박

지난 14년 동안 WWF 인도네시아 본부의 산림범죄팀(Forest Crime Unit)과 EOTF(Eyes on the Forest)는 아시아펄프앤페이퍼(APP, Asia Pulp and Paper)가 자행한 광범위한 열대 우림 파괴에 대해 조사와 보고를 진행해왔다. 아울러 전 세계 기업과 금융기관에 APP와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해왔다. 다양한 비정부기구의 압박을 받던 APP는 2013년 초 산림 파괴 중단을 약속했고, 2014년에는 보유하고 있는 농장의 면적에 필적하는, 100만 헥타르의 산림을 복구 및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환경 보전에 있어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APP의 목표 이행 여부와 이행 방안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WWF는 APP의 목표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 활동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중이다.

100,000

지속가능한 소비에
관한 책자가 중국 내
상점에서 배포되고 있다.

더 나은 선택에 대한 인식 제고

WWF는 인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네트워크 내 다양한 분부 및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중이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페루 등의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해산물의 날을 지정하였고 WWF 스웨덴 본부와 기타 사무소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량 선택을 위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WWF에서는 중국, 루마니아,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 FSC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한 2013년 9월 '중국지속가능소매업협의회(China Sustainable Retail Roundtable)와 함께 전국 지속가능한 소비 주관을 처음으로 진행했다. 지속가능 상품에 대한 인증 제도(FSC와 MSC)와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홍보하는 WWF 소책자 10만 부가 행사에 참여한 소매상점을 통해 배포되었고, 중국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2013년에 영화 트레일러 형식의 수상작 영상을 발표하였고 팜유 관련 문제를 설명하는 웹사이트(unseenthemovie.com) 또한 4개국어로 제공했다. 방문자들은 웹사이트를 통해 기업들이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혹은 하지 않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업들이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트위터로 직접 멘션을 넣도록 장려받았다.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1만 건을 넘어섰고, 이를 통해 8,000건이 넘는 트윗이 기업에 전송되었다.

1/4

영국 기관 중 1/4이
FSC 인증 종이와 나무를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공공 부문의 약속

많은 국가의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역시 주요 원자재의 중요한 구매자이다. 많은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지속가능한 구매를 할 의지를 표명해왔다. 영국 정부는 2015년까지 모든 팜유를 지속가능한 인증 팜유로 구매하기로 약속하였고 영국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세운 목표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11-2012년에 WWF 영국 본부가 실시한 캠페인의 영향으로, 영국 내 95개 기관(전체의 약 4분의 1)이 FSC 인증을 받은 목재와 종이로 전환하는 데 동의했다. 이들은 또한 학교, 병원, 교도소, 급식소에서 MSC 인증 생선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아일랜드 정부는 수출하는 모든 식음료를 2016년 말까지 지속가능한 방식에 따라 생산하기로 약속했다.

A photograph of a man in a forest, carrying a large, freshly cut log on his shoulder. The log is light brown and shows the wood grain. The man is wearing a light-colored, short-sleeved shirt and a necklace. The background is a dense forest with green foliage and a clear blue sky. The image is partially obscured by an orange text box on the left side.

인증을 통한 개선

카메룬에서는 현재 100만 헥타르 이상의 열대우림이 FSC 인증을 받은 상태이다. 이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야생 동식물을 보전하고 바카족과 같은 지역 토착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었다.

FSC 인증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혜택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입증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FSC 인증을 받은 벌목 작업은 여타의 인증제도를 포함한 다른 벌목 작업보다 산림파편화(forest fragmentation)나 야생동물 서식지 교란을 감소시킨다. 법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심지어 FSC 인증이 밀렵, 불법 벌목, 채굴, 산불 등과 같은 위협의 예방에 있어 보호구역 지정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인증제도는 또한 벌목 기업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개발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증을 받기 위해 기업들은 대부분 근로자를 위한 안전 조치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한편 FSC 인증을 받은 기업은 숙소, 생활 환경, 건강 보험, 의료 시설과 같은 면에서 근로자 처우가 다른 기업에 비해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성 정보 공개를 통해 주요 이해 관계자들의 자발적 개선 정도 파악 및 능력 함양

“환경 제지 지표에 참여하는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기업 활동과 투명성이 업계에서도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말입니다. 고객 또한 제품 공급이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점차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당사는 지난 몇 년간 환경 제지 지표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이 및 포장재 기업으로서 투명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John Lindahl,
몬디그룹 기술이사

정보를 명확하게 공개하고 진척 상황을 주기적으로 감시하는 일은, WWF가 생산방식 개선을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역할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는 다른 기관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최고를 향한 경쟁 (race to the top)’을 유도할 수 있다.

팜유 구매자 스코어카드

WWF에서는 격년 주기의 스코어카드를 세 차례 발표하여, 팜유를 사용하는 소매업체와 제조사들이 어떤 식으로 지속가능성을 실천하는지 평가했다. 이 스코어카드는 기업이 정한 목표의 달성치, 이를 위한 노력의 정도, 지속가능한 인증 팜유 구매를 위한 노력을 평가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2013년에는 14개국 130개 기업을 평가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팜유의 활용 비율은 늘어가고 있지만 열대 우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거나 책임감 있는 농장주를 지원하는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 이 스코어카드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팜유 업계 내에서도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약속 이행에 미온적인 기업에 압박을 가하는 한편 약속을 잘 실천해 온 기업을 더욱 격려했다.

2014 대두 리포트카드 도입

RTRS 인증 대두의 사용이 늘지 않자 WWF는 2014년에 대두 리포트카드를 처음으로 발표했다. 리포트카드는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에서 88개 주요 대두 구매 기업들의 구매 정책을 평가했다. 전년도인 2013년에는 ‘대두 성장(The Growth of Soy)’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 대두 산업의 현황, 여파, 가능한 대응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진행했다. 전체 대두의 약 4분의 3이 가축 사료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리포트카드는 동물 사료용 대두를 집중 분석하여 공급망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육류, 달걀, 사료 기업 등이 책임감 있는 대두를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다루었다. 리포트카드가 발표된 이후 10개가 넘는 기업이 RTRS에 가입하여 RTRS 인증서를 구입하고 목표를 설정했으며 WWF에 자문을 구하기 시작했다.

종이 생산 정보 공개

세계 최대의 펄프, 종이 생산 기업들이 WWF의 ‘환경 제지 지표’를 통해 자사 종지와 펄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자발적으로 공개했다. 매년 발표되는 환경 제지 지표 참여 기업 수는 2010년 5개사에서 2013년 25개사로 증가했다. 참여 기업들이 생산하는 펄프, 종이, 보드의 양은 총 8,200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4%를 차지한다. 이 지표는 책임감 있는 섬유 구매에서부터 청정 제조 방식, 친환경 관리 시스템까지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제품군을 평가한다. 한편 종이 생산 기업들은 checkyourpaper.panda.org 에서 제공하는 간단한 자체 평가도구를 활용해 더욱 친환경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구매자들 또한 여러 가지 종이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RICHARD STONEHOUSE / WWF-CANON

소비자들은 인증제도를 통해 어렵지 않게 책임감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사진 속 제품은 MSC 인증 대구와 RSPO 인증 팜유로 제조되었다.

공공 정책 자발적 기준 마련을 넘어 정부 정책과 규제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



어장 관리의 개선

지난 몇 년 동안 WWF는 국제 수역 내 수산 자원을 감시하는 지역 어장 관리 기관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도양참치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는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어획이 이루어지도록 과학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된 규제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고, 상어와 해양 포유 동물의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범을 적용했다. 동태평양 지역에서는 미주열대참치위원회(Inter-American Tropical Tuna Commission)가 멸종 위기 상어종의 포획에 대한 제재를 가하였고, 집어장치, 선망어업, 길이 20m가 넘는 주낙 등 환경 파괴적인 어획 방식을 줄이는 데에 이용할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중서태평양어장위원회(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는 상어와 갈매기 보호 방안을 적용하고 규제, 감시 없이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어획을 방지하도록 지역내 모든 어선에 고유 선박 식별 코드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산림 거버넌스의 강화

다수의 국가에 강력한 산림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에서 FSC 인증제도가 모니터 및 법규 준수 활동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가봉 내에서 CIFOR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FSC 인증을 받지 않은 벌목 방식보다 인증을 받은 방식이 환경 규제를 더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볼리비아, 브라질, 러시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파라과이에서 WWF는 산림 벌채 제로법을 2018년까지 연장하기 위한 로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FSC는 지역적, 국가적 규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과거 러시아의 국내 산림 정책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여파와 경제적 산출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보다 경제적 산출을 극대화 하는 데에 집중했었다. 이 때문에 산림법과 FSC 인증 간에 큰 격차가 있었다. 그러나 WWF의 노력을 통해 러시아는 자연보전과 지속가능한 운영에 관한 포괄적인 산림 정책을 새로 설계하게 되었다. 예컨대 대중의 산림 계획 참여, 또는 손상되지 않은 산림 경관과 생태 기능 보호와 같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담겨 있다.



바이오 연료 벤치마킹

2013년, WWF는 유럽연합재생에너지지침(EU-RED, European Renewable Energy Directive)에서 인정하는 각종 바이오 연료 기준과 제도를 분석했다. 이러한 제도의 취지는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임에도, WWF의 벤치마킹 연구에 따르면 13개 기준 상당수가 기본적인 환경 및 사회 관련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위 3대 제도인 RSB와 RSPO, RTRS는 모두 이해관계자가 다수 참여하는 사업으로 WWF가 개발에 참여한 제도였다. WWF의 분석을 계기로 이러한 제도가 다수 변경되었고, 아울러 WWF는 EU-RED의 요건을 강화하도록 유럽 각국을 압박하고 있다.



불법 목재 단속 법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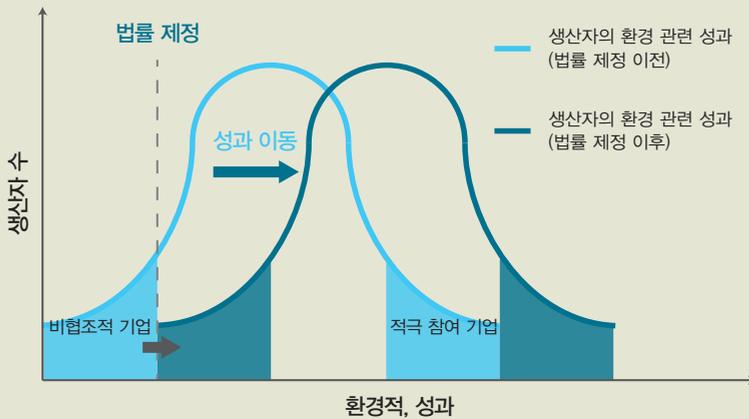
지난 5년간 미국과 유럽연합, 호주에서는 법률을 새로 제정하고 불법 목재 수입을 단속해왔다. 이러한 법률이 중요한 이유는 책임감 있게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글로벌 목재 공급망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WWF는 정치권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진행하고, 대중 및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지원을 이끌어낼 뿐 아니라, 법률 입안과 시행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중국 내 그린 बैं킹 법률

WWF는 중국 정부, IFC, 중국 은행들과 협력하여 친환경 신용 정책과 그 적용을 위한 지침을 개발했다. 이 정책과 지침을 통해 환경 파괴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지속가능한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도록 했다. 이 지침은 국내 여신과 해외 여신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이는 세계 5대 해외 투자국 중 하나인 중국에서 이루어낸 큰 성과이다.

더 나은 생산을 법적 표준으로 만들기



적극 참여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기준을 채택할 경우, 법률 제정을 통해 비협조 기업의 개선 노력을 강제할 수 있다.

역량 제고

WWF 네트워크 및 광범위한 외부 기관의 시장변화 활동 지원

WWF 네트워크

WWF는 네트워크 전반에 걸쳐 주요 국가에서 시장변화 작업과 역량 강화에 투자를 해왔다.

€2,500만

WWF 네트워크가 매년 시장변화 활동에 투자하는 대략적인 금액

300+

WWF가 운영 중인 시장변화 사업의 수

35+

시장변화 사업에 참여 중인 WWF 사무소의 수

400

시장변화 프로그램 및 사업에 참여 중인 WWF 직원의 수

60+

금융 분야 관련 교육을 이수한 WWF 직원의 수

더 나은 관행의 전파

WWF는 교육, 도구, 시범 사업, 발표 자료, 온라인 영상을 통해 생산자, 기업, 금융 분야의 생산관행 개선을 지원해 왔다.

300,000

WWF와 IKEA는 2006년 처음으로 더 나은 면화 재배 방법을 시연하기 위해 시범 사업을 선보였다.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0,000명의 농부가 더 나은 면화 재배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2/3

WWF는 메소아메리칸 리프 집수지 지역에서 BMP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도구와 교육을 제공한 바 있다. 현재 BMP는 약 200,000 헥타르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생산 규모의 약 2/3 를 차지한다

840+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 말레이시아에서 지속가능한 투자에 관한 교육을 받은 금융가들

2.2

시장변화 활동을 다룬 TED 강연 동영상 조회수

시장변화 도구상자

WWF는 더 나은 생산 방식에 대한 기업의 주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도구를 개발했다.

		
<p>내가 우려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p>	<p>상품 생산 위험요인의 확인과 이해</p>	<p>공급리스크 분석 (supplyrisk.org) GMAP 도구 2050 기준 은행용 ESG가이드</p>
<p>기준의 비교는 어떻게 이루어지나?</p>	<p>기준의 요구조건과 시스템의 장점을 판단하여 비교 - 현장 시행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대체 수단</p>	<p>인증평가도구 (CAT) (예: 바이오 연료 벤치 마킹)</p>
<p>인증을 받는 것이 효율적인가?</p>	<p>현장에서 사회적, 환경적 성과 입증</p>	<p>사회 및 환경 영향 평가 사례 연구</p>
<p>시행 가치가 있는가?</p>	<p>경제 성과 입증</p>	<p>각 인증제도와 관련한 비즈니스 사례</p>

미래전망: 새로운기준

지난 몇 년간의 시장변화에 대한 관심 확대로 향후 몇 년간의 중요성 증대

지난 몇 년간 WWF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변화된 생산관행을 실천하는 생산자들이 늘어났고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와 정부도 변화된 생산관행을 생산자들에게 요구해왔다. 이는 현장의 환경을 보전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했으며, 더불어 농부와 어부, 산림업자 및 그 가족의 생계를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

WWF가 앞장서 추진해 온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인증제도가 식품과 농업 분야, 산림과 수산물 분야에서 점차 '표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다수의 대규모 구매업체들이 인증 상품만을 구매하겠다고 이미 약속했으며, 주요 금융기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취득 여부를 대출 조건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업은 인증 업무를 사업의 일부로 인식하고 이를 활용하거나 보고한다. 이는 '새로운 기준'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갈 길이 멀다. 향후 몇 년간 우리는 현재의 성과를 가능케 했던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아래 부문에 더 치중할 예정이다.

영향력 - 우리는 캠페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이 자연 보전 메시지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주요 상품 - 우리는 팜유, 대두, 쇠고기, 목재, 펄프 및 종이, 참치, 흰살 생선, 양식 새우 등 총 8가지 상품 보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생산자 참여 확대 - 우리는 소규모 생산자를 대상으로 인증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관 접근법 - 아울러 우리는기업에 인증 취득을 장려하는 단계를 넘어, 집수지와 지역, 국가차원에서 생산 방식과 생태계를 통합시키는, 경관(landscape) 차원의 자연 보전 활동을 장려해 나갈 것이다.

공공 정책 -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공 정책 입안에 참여하여 법률을 통해 자발적 인증 작업을 지원할 것이다.

생산자와 유통업체, 정부와 비정부기구, 환경운동가와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많은 사람들이 WWF의 활동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앞으로도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하기를 고대하며, 더 나은 상품을 생산하고 미래 세대에 생명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 이들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다.

연혁



WWF-Korea Publications

Reports



지구생명보고서 2014 요약본

Living Planet Report 2014 Summary KR | EN 2014

세계자연기금(WWF)은 1998년부터 격년으로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014년 글로벌 생태발자국네트워크(GFN), 런던동물학회(ZSL), 물발자국네트워크(Water Footprint Network)과 함께 인류의 생태발자국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구생명지수(LPI)가 지난 40년간 52% 감소, 척추동물의 개체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으며 전 세계 평균 지구 1.5개분의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생명보고서: 종, 서식처, 그리고 인류의 변형

Living Blue Planet Report: Species, habitats and human well-being KR | EN 2015

전 세계 약 40억 명의 인구가 물고기 등 수산물을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40여 년간 해양생물의 개체 수와 식용 어류 개체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인류의 식량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해양 생물자원과 해양 생태계가 현재 직면한 위기를 분석하고 건강한 바다가 지속되는 푸른 별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과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변화 적응의 중요성

WWF and UNFCCC: Adaptation Matters KR | EN 2015

국제 기후변화 대응 체제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논의의 중요성과 프랑스 파리 제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다뤄야 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지구생명보고서 2014: 생물종과 공간, 사람과 장소

Living Planet Report 2014: Species and spaces, people and places KR | EN 2015

지구생명보고서는 깊이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도 대중들에게 효율적으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보고서 전문과 요약본을 발행하였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에 이은 다섯 번째 언어본.



해양경제 되살리기: 8대 실천 조치

Reviving the Ocean Economy: The Case for Action - 2015 KR | EN 2016

바다는 그동안 무한한 것으로 여겨졌지만 지나친 개발과 이용으로 파괴되고 있다. 사실 해양의 경제적 가치는 GDP와 같은 해양 총생산가치로 국가 순위를 견주어보면 6위 영국에 이은 전 세계 7위 규모이며 총자산 가치는 약 25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실제 해양의 가치는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다. 중요한 해양 자산을 보전하기 위해 인류가 실천해야 할 8대 조치를 소개하고 있다.



해양보호구역: 해양 건강을 위한 현명한 투자

Marine Protected Areas: Smart Investments in Ocean Health KR | EN 2016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풍요로운 바다는 식량과 일자리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산소 공급 및 탄소 격리와 같은 중요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잘 관리된 해양보호구역(MPA)은 생물다양성, 생산성과 바다의 회복력을 보호 강화하여 지속가능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한국 수산 기초조사 보고서

Korea's Fisheries Sector Assessment KR | EN 2016

전 세계 최대 원양 강국 중 하나이자 세계 5대 수산물 수입 및 소비국인 우리나라의 수산업에 대한 기초 조사 보고서이다. 국내 연근해 어업과 원양어업의 현황, 관련 정부 정책, 수산물 시장과 소비를 파악하고 분석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가 처음으로 연구 조사하여 자체 발간한 보고서이다.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limate Change on Species KR | EN 2016

전 세계적 현상인 기후변화가 다양한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함으로써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보고서.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생태계 및 야생생물에 주는 부담이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고서는 7가지 생물종의 특징, 분포와 멸종위기 현황을 정리하고 기후변화가 각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WWF가 이들 생물들을 위해 하고 있는 구체적 활동들도 소개한다.



에너지보고서: 2050년 100% 재생에너지 요약본

The Energy Report: 100% Renewable Energy by 2050 Summary KR 2016 | EN 2011

한국의 2050년 에너지 비전과 로드맵 제시에 앞서,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어떤 식으로 가능하며 전체적인 방향성은 어떠한지 등 세계적 컨설팅 기업 에코피스의 에너지 시나리오 예측 분석한, 2011년 WWF의 보고서 "에너지 보고서: 2050년 100% 재생에너지"의 요약본

General Publications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

Our Beautiful Earth KR | EN 2014

지구생명보고서 2014 중 '인간이 현재와 같이 소비 지향적인 삶의 방식을 유지할 경우 지구에 어떠한 위험이 오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쉽게 설명한 어린이 환경 서적. 판다와 반달가슴곰, 학을 주인공으로 하여 가족 친화적으로 구성된 WWF-Korea의 첫 제작 발간 서적.



시장변화 이니셔티브 Fact Sheet

Market Transformation Initiative Fact Sheet KR 2016 | EN 2014

시장변화 이니셔티브 보고서인 "더 나은 생산을 위한 더 많은 이들의 노력"을 간략하고 보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지속가능 인증 생산의 증대와 여러 성과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연간보고서 2015

Annual Report 2015 KR | EN 2015

WWF-Korea의 첫 연간 보고서. 2015년 회계연도 동안의 1600+ 판다 한국 전지를 비롯한 활동, 파트너십과 후원 현황 및 회계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지구촌 전등끄기 소개서

Earth Hour Leaflet KR 2016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시작되어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는 '지구촌 전등끄기(Earth Hour)'의 소개서. 2016년 캠페인의 주요 정보와 테마, 기업의 참여 방법 등 지구촌 전등끄기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한다. 특히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촌 전등끄기는 WWF의 주도하에 17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전 세계 최대 환경 캠페인으로서 매년 3월 진행되고 있고 올해는 3월 19일에 저녁 8시 30분에 열린다.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세계자연기금의 출판물은 저희 웹사이트 www.wwfkorea.or.kr/publications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 문의: 02-722-1601 | info@wwfkorea.or.kr

@wwfkorea

숫자로 보는 시장변화

Market Transformation in Numbers

+15%

파키스탄에서 '더 나은 면화'를 생산하는 농부들이 물과 화학비료의 사용을 줄이고도 소득을 15% 증가시켰다.

57%

전 세계적으로 57%의 환살생선이 MSC 인증을 얻었다.

-68%

메소아메리칸 리프 집수지 지역에서 개선된 농경법으로 농약 독성을 68% 감소시켰다.

0

RTRS 대두와 RSPO 팜유 농장은 고도의 보전가치를 지닌 지역이나 자연산림 지역을 파괴하지 말아야 한다.



ASSETPLUS

에셋플러스자산운용

본 보고서는 에셋플러스자산운용(ASSETPLUS Investment Management Co., Ltd.) 임직원의 후원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소수펀드 운용, 일등기업 장기투자, 소통판매 원칙을 지키는 에셋플러스 사람들은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풍요로운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를 후원합니다.



세계자연기금(WWF)은 지구의 자연환경 파괴를 막고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를 위해 일하는 세계 최대 자연보전기관입니다.

wwfkorea.or.kr

© 1986 판다 도형 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는 WWF의 등록상표입니다.